

서울캠 내일(11일) 학생총회

동맹휴업 결의 절차상 문제...학생들에게 설득력 가질지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과학4)는 내일(11일) 전면적인 동맹휴업 학생 총회를 실시한다.

지난 4일 재적인원 99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성사된 '비상 전체 학생 대표 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학생총회와 등록금 납부거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동맹휴업의 실시 여부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문학부 대표자는 "지난 98년 총장 선출과정에서 '일만삼천 결의대회'를 위한 전면휴업'의 찬반을 묻는 총투표가 실시됐던 것"을 지적하며 이번 동맹휴업을 두고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복 총학생회장은 "급박한 사안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며 "대표자들이 학생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휴업은 전교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휴업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 전체의 의견을 묻고 찬·반 투표에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아무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비상 사태가 벌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자들은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동맹휴업 실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동맹휴업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소수의 대표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수긍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93년 이후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던 학생총회도 성사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6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차 총결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학생회장의 사발식을 한 후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또한

지난 달 16일 총학생회에서 학교측에 제시한 요구안의 답변에 대해 "답변 내용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라며 학교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본관 안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4명의 학생들이 동전으로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학생들은 복도벽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낙서를 했다. 이승복 총학생회장은 △4월 11일 오후3시 학생총회 자리에 송석구 총장이 참석할 것 △서울캠과 경주캠의 등록금을 동결할 것 △등록금 납부 거부자 처리에 대한 학교측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 등에 대한 세번째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10일) 정오(12시)에 있을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서울보도)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추모... 하지만 하다.

지난 4일 정각원에서 미시렁사고로 숨진 7명의 학생들을 위한 49제가 열렸다. 그날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나더라도 하는 듯 고개숙인 학생들의 표정은 침울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지면안내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제안 5면



학내 휴게실과 복지시설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대학생이 뽑은 낙선자 명단 4면

사랑터킷 6면

내게 '퓨전'을 말해봐 7면



핸드폰과 선정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우주와 인생의 참다운 진리에 대한 무지(無知)를 불교에서는 흔히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이 무명은 불교 교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명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불교의 궁극 목표인 해탈과 열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무명은 지혜의 빛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으며, 지혜는 선정(禪定)의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선정의 상태에서 우리는 정신의 집중력을 높이고, 들뜨고 혼탁한 마음을 가라앉혀 자기객관화를 이루며, 모든 미망과 고정관념을 떨쳐냄으로써 심신의 평정을 유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참다운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가. 선정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들은 겉허하게 반성하는 것도 잊게 되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잊게 되었다. 예컨대 '핸드폰'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핸드폰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무차별 판매 전략에 의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속도로 보급되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길을 가면서도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며 수시로 수신메시지를 확인한다. 또한 새로 나온 모델에 대해서도 지루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항상 긴장하게 되어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통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니 기다릴 줄도 인내할 줄도 모르게 된다. 그리하여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점점 나약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잃게 되며, 인간의 실존적 한계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기게 된다. 또한 찰조를 위한 나만의 공간, 고독의 시간과도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각원 고승초빙법회

내일(11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1일) 오후 4시 고승초빙법회를 개최한다.

'현대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월운 큰스님(역경원장)의 설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의 안중철법사는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많은 학생·교직원들이 고승 월운 스님의 귀한 설법을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구부 8강 진출

오는 12일 2시 경희대와

본교 야구부는 2000년 전국대학 야구 춘계리그에서 A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이는 지난 7일 청주에서 열린 A조 경성대와와의 경기를 12:0으로 승리하면서 확정된 것이다.

이날 경기에서 강규태군(법 3)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보였다.

야구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운동장에서 경희대와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학생 자치, 이제 ‘사이버공간’에서 한다”

인터넷 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구현 기대

학부나 단과대 소속 학생들 중 대부분은 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떠한 회칙이 제정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본교 법과대 학생회(회장=임승현·법4)는 법과대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회 주요안건에 투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학생회 사업이 몇몇 간부들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주요 안건을 학생 모두에게 이메일로 공지한 후 일정시간 동안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과대에서는 투표를 보류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디어와 암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승현 학생회장은 “그 동안 학생회에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의견개진을 하고 투표를 시행할 경우, 보다 많은 학생이 학생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 투표는 지난달 11일 미국 민주당의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 실시됐으며 이는 사상 처음 현실정치에 이용된 것이다. 이 투표에는 3만 5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가해 지난 96년 애리조나 예비선거 투표인원인 1만 2천명의 3배에 가까운 숫자로 투표를 상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이버 투표를 통해 투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부자치기구는 개개인으로

몰려져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그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단체생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자치기구 운영이 소수 간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권위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고 모집단위 광역화 등으로 학생회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진행된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게시판을 통해 즉시 반영할 수 있어 학생들의 결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 또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학생회 활동은 대학 사회의 새로운 변화이며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법과대의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단과대와 총학생회까지 학생회 자치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학내에서 작은 권리행사일 뿐만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gu.ac.kr

홈스테이 통한 색다른 문화체험

해외단기문화연수, 오는 19일까지 접수

본교는 국내대학 최초로 단기 문화연수를 자매대학인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 실시한다.

단기문화연수단 10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수단이 일주일동안 해외대학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와 대학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본교 연수단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삿포로학원대학교를 우선 방문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공동으로 참여 △민속마을과 박물관 등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며 △일본대학에서 준비한 음식축제에 참가 △한·일 사회 연구를 주제로 하는 영어회화 콘서트 등을 체험하게 되며 삿포로학원대학교 학생들은 9월 중으로 본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 기간중에 학생들은 일본 학생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일본 교류학생 집에서 2일 정도 머무르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학부과정 2학년 이상 재학생 △평점 3.0 이상 △영어회화가능 △일본 연수단 방문시 홈스테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지원서와 재학 및 성적증명서를 준비해 오는 19일까지 본관 국제교류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의 한 관계

자는 “학교에서 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이번 연수는 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자매대학과 교류증진을 위한 것으로 교류대학을 더 확대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일성 촬영감독 겸임교수 ‘촬영 I’ 과목 강의

영화 ‘장군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춘향전’ 등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 영화의 거장 정일성 촬영 감독이 지난 달 1일자로 본교 영화영상학과 겸임교수를 맡아 강단에 섰다.

오랫동안 연출을 해온 정감독은 촬영 I 과목을 한 학기동안 강의할 예정이다.

고수동정

▲이명천·임종주·이의수(화학공학)=다음달 18일부터 24일까지 2000 뒤셀도르프 국제 인쇄 및 제지 박람회 방문.

▲연기영(법과대학장)=지난 8일 오후 2시 경희대 법학관에서 '프로스포츠와 법적문제'를 주제로 제2회 학술발표회 진행.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 기획광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50년 4월 15일 창간호 맞습니다.

발간이래로 동대신문이 50주년을

이에 객지 장길산의 작가이며 실천적인 사회운동가로 활동중인 황석영씨를 모시고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월 17일 본관 중강당에서 ‘아들을 위하여 - N세대에게 고함’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회(오후 4시, 중강당)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증보한국연극사' 개정판 출간

연극사에 대한 이해 도움 듯

출판부(부장=김병수)는 연극학계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해온 '증보 한국연극사'를 새로 개정해 지난 달 15일 출간했다.

고대연극에서부터 현대연극까지 우리의 전통연극을 시대별로 체계화한 이 책은 83년 본교 장한기 명예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연극 관련 유적지에서 새로 발굴된 유물과 기록을 보충하여 다시 펴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수부장은 "연극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이 책을 통해 연극사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병무상담실 운영

오는 25일 상록원 앞에서

사무처(처장=황영수) 총무팀은 오는 25일 상록원 식당 앞에서 이동병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2000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병무청 공보실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 병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유병문 석방 촉구집회' 열려

오늘(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유병문 석방대책위원회(대표=오창규·조계사 농성단장)는 '청와대 약속이행과 유병문 석방 촉구 집회'를 오늘(10일) 정오에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가협 어머니들과 본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이번 집회는 "자진 출두하여 간단한 조사를 받으면 수배를 해제하겠다"는 청와대측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씨의 석방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유병문씨 문제를 단지 선배의 문제로서만 보는데 아니라 양심수 문제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사 총선대학생 유권자운동 벌여

이메일 서명운동 2백50명 동참

본사에서는 '2000년 총선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본부장=김소열·전북대 총학생회장)에서 주관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을 지난 6일과 7일 이틀동안 벌여 본교 250명 학생의 서명을 받았다.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는 서명받은 이메일 주소로 총선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총학생회 요구안과 학교 답변

총학생회 "적립계획 철회하고 납부거부자 보호"

학교 "목적성 기금 적립 불가피 최종 등록마감일 통보 예정"

지난 달 16일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제시한 요구안과 지난 3일 학교측에서 회신한 답변 중 등록금동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억원의 적립계획 철회=2000학년도 특정목적기금으로 34억의 적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건축 및 학교회계의 특성상 예산집행은 불가피하며, 제도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임.

△등록금 의존율을 낮춤=국가보조금과 기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과 더불어 외부기부금 수입 확보 노력 등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음.

△재단전입금을 확충=본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재단에 전입금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또한 재단에서도 재단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활용과 각종 사업을 통해 전입금을 확충하고자 많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등록금 납부 거부자들에게 대한 학교측의 보호=대학은 재적생 변동사항을 매학기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학교는 미등록 학생들에게 최종등록 마감일을 통보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음.

그러나 총학생회는 △그동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충분하 있음에도 특정목적기금을 위해 새로운 적립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전입금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재단에서도 많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할 수 있는 무성의한 답변임. △납부거부자들에게 대한 보호 요청 답변은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로



사진/김윤미 기자

지난 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는 오는 11일에 있을 학생총회 및 등록금 납부 거부와 관련하여 비상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가 열렸다.

며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등록금 납부 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58명의 학생들이 납부 거부를 선언하

였다. 한편 4월 8일 현재 서울캠퍼스 경우 98%의 학생이 등록금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선 기자 eunsun@dgu.ac.kr

박영석 동문 히말라야 등정 생중계

SBS 홈페이지에서 등반코스 등 소개

박영석 동문이 이끄는 '2000 동국 마칼루·시사파마 원정대'의 실황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다.

한편, 세계 제5위의 고봉 마칼루를 향해 떠난 원정대는 이제 등반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동국 발전을 위해 밖에서 힘쓰는 박동문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홈페이지로 현지에 전하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해서 △현장 생중계 △등반일정 △등반코스 등과 함께 대원들의 현지 생활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동국 발전을 위해 밖에서 힘쓰는 박동문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홈페이지로 현지에 전하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웹DB와 전자저널 교육 실시

오늘(10일)부터 2일간 멀티미디어실에서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학술 웹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웹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전체 교수와 대학원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11일 양일에 걸쳐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4시로 각 2회, 총 4회에 걸쳐 멀티미디어실에서 실시된다.

인문·사회분야와 자연·공학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교육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gu.ac.kr)의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생은 이번 교육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전산실의 한 관계자는 "우선 교수와 직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학부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교 '인터넷 강의 평가' 준비

과목 특성 고려한 평가기대...점진적으로 공개돼야

그간 형식적이고 융통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됐던 강의 평가 대신에 인터넷 강의평가가 새로운 강의평가 방안으로 떠올랐다. 본교도 이번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인터넷 강의평가와 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기존에 실시한 설문지 형식의 강의평가는 평가문항이 15개밖에 되지 않고, 표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으로 강의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의미했다.

인터넷 강의평가란 학생 개인이 인터넷 망에 접속해 화면에서 평가설문에 직접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 즉시 컴퓨터로 통계처리되어 이중작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고, 통계결과가 빠르게 산출된다. 또한 학생이 강의평가를 교수 앞에서 하지 않아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인하대에서는 지난 해부터 인터넷 강의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있다. 인하대는 학생이 인터넷으로 성적조회를 하려면 반드시 강의평가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교수들의 휴일이 줄어들게 되고 강의시간을 충실하게 지키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적조회를 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강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50명량이 넘는 평가서를 학생들이 내실있게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수들도 이러한 평가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을 표시하며, 이 결과가 학교당국에 의해 교수 임용에 적용될 소지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평가문항수 △교과목 특성에 맞는 문항 △강의 평가 시스템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본교에서 강의평가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학생의 강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gu.ac.kr

희전무대

연기 조심

오... "담배연기 조심하세요!" 감기에 걸리지도 않은 일부 학생들이 강의시간만 되면 계속 기침을 한다는데.

무슨일이고 하니, 칠판 옆에 붙어있는 금연 표지판을 무시한채, 강의 중간 틈틈히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수님이 계신다고.

강의실 안쪽으로 부는 바람때문에 학생들이까지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셈이니.

이에 한 학생알, "아니 피운 담배연기에 콜록거리라!"

종이바람

오...황사현상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 요즘 교내에 종이도 날아 다닌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시기가 지난 각 동아리의 대자보를 제 때 떼지 않아 교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바람에 너털너털해질 경우 종은 바람따라 교내를 날아다닌다고.

이에 지나가다 날아다니는 대자보와 부딪힌 한 학우 알, "이 종이도 중국에서 날아온 것인가!"

자금 투쟁(?)

오...학생들이 소위 운동권용어라 불리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래 학생회에서 벌이는 활동들 중에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입학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생알, "학자투는 '학원 자금투쟁'의 줄임말인가?"

효자북(北)

오...얼마 전 7년만에 재개된 제 9차 북·일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본격적으로 과거청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데.

북측이 제시한 것으로 최고 책임자의 사죄, 인적 물질적 손해보상 등은 종전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문화재 반환 및 보상,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개선은 예상 밖이었다고.

이에 대해 남측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시원하게 네 등을 긁어주는 것이 다음엔 내 눈의 가시(?)였군"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관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이메일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 · 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자기 성장을 위한 만남

- MBTI를 통한 집단상담 -

- 내용 : MBTI(성격유형검사) 실시 및 집단상담
- 일시 및 장소
 - 1차 : 4. 14(금) 오후 2시 본관2층 학생상담실
 - 2차 : 5. 4(목) 오후 2시 본관2층 학생상담실
 - * 시간과 장소는 추후 조정 가능
- 비용 : 무료
- 접수
 - 1차 : 4. 3(월) ~ 4. 11(화)
 - 2차 : 4. 3(월) ~ 5. 2(화)
- 접수처 : 본관 2층 학생상담실(신청순 50명)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고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후배관계, 이성관계, 진로 및 직업선택 등에서 성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성장을 위한 만남"에서는 자신의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친구, 선·후배, 가족들이 가진 각 성격유형을 이해·존중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이번의 기회를 통해 대인관계에서의 오프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보십시오.

학생상담실

백일장

국어국문학부(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문과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갖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 일시 : 2000. 4. 29(토) 10:00 ~ 17:00
- 장소 : 만해관장(우천시 중강당)
- 부문 : 시, 소설, 수필
 - * 각 부문 입선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줌.
- 신청기간 : 2000. 4. 4 ~ 4. 21
- 신청장소 : 국어국문학부 사무실
(교수회관 427호, 전화 : 2260-3151)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해외 자매대학 문화연수

- 행사명 : 동국대학교와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간 학생 단기 문화연수
- 교류형태 : 양 대학이 각각 10여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년 1회·1주일씩 상대국을 교환 방문하는 것으로 하되, 본교측이 먼저 파견.
- 교류기간(예정)
 - 가. 본교측 파견 : 2000. 6. 26(월) ~ 7. 2(일) 6박7일
 - 나. 본교측 초청 : 2000. 9. 중순
- 주요 교류내용(세부활동계획 참조)
 - 가. 영어를 사용언어로 하는 학생교류
 - 나. 상대국(대학) 체류기간 중 홈스테이(Homestay)를 통한 실생활 체험
 - 다. 한·일 공동관심사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영어회화 콘테스트 등의 참여
 - 라. 양국 명소 관광 등의 문화탐방
- 연수경비(1인당)

구분	금액	비고
왕복항공료	₩454,800	그룹요금
숙박비	₩252,950	호텔 3박
식비	-	삿포로학원대학측 부담
소계	₩707,750	
	- ₩300,000	* 연수생 1인당 학교 지원액
실질부담액	₩407,750	* 기타 경비는 학생 본인 부담

* 기준환율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연수단 구성
 - 가. 연수인원 : 10명 + 인솔교수
 - 나. 구성방식 : 공모 및 면접을 통한 최종 선정
- 신청자격
 - 가. 현재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2학년(3학기)이상 재학생으로 평균평점이 3.0이상
 - 나. 영어회화가 가능
 - 다. 본교측 파견에 이은 일본측 연수단 방한시(9월 중순 예정) 본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Homestay 제공 등)
-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문화연수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모집일정
 - 가. 원서 교부·접수 : 2000. 4. 3(월) ~ 4. 19(수), 국제교류담당관실
 - 나. 면접 : 2000. 4. 21(금) 14:00 ~, 국제교류담당관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실(본관 2층, ☎3875)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등록금 동결과 학원자주화 투쟁 끝장을 보기위한 4.11 학생 총회 및 동맹휴업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는 절절하게 호소도 해봤고, 3차례에 걸친 방송 등록금 협상도 진행했습니다. 3월에는 유인물 작업, 선전전, 집회, 학의방문, 기획인사처장실 집기 들어내기, 3월에 걸친 계속된 공문발송, 본관 락카칠과 총장실 계란투척, 2번에 걸친 등록금 동전 납부, 대표자 단식투쟁, 총·부총 학생회장 삭발등 등허리가 꺾일 정도의 투쟁을, 떠나가는 학우들의 마음을 담아 절절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복직부동입니다. 이제 1만2천의 노도의 같은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4.11 동맹휴업과 학생총회입니다.

연재 : 4월11일 늦은 1시
어디서 : 중앙도서관 앞

93년 이후 학생총회가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등록금 문제가 생존권문제이고, 학우들의 교육권의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오는 만큼 반드시 학생총회를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1만2천중 1/50이상이 참여해야 성사됩니다. 민족동국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자주의 그날까지 민족동국이어, 전/진/하/라!!

1만 2천 학우들과 함께 승리하는

민족동국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논단

경제구조 개선으로 제2의 경제위기 넘겨야

IMF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여전히 IMF경제위기 이전 보다 못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여전히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취약한 금융구조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취약한 금융구조가 초래한 외환유동성의 고갈에 의한 외환금융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였다. 지난 2년 간 정부의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들의 도움으로 전자의 외환금융위기는 상당히 극복되었다. 한때 4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고가 최근에 800억 달러를 넘어섰는가 하면, 외채규모도 97년 말 541억 달러의 순채권국이던 것이 올해 1월말 현재 총채의지불부담이 줄어들면서 97억달러의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한때 10%가 넘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지다가 하면 작년도의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한때 7,000불 이하로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불 이상으로 넘어섰다. 이 외에도 소비와 기업의 투자도 IMF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구조적 위기 극복 못하면 제2의 경제위기 올수도

이러한 외환금융위기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것은 후자의 구조적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징조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고, IMF경제위기 발생 때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하여 국제채권기관들이 만기연장을 불허하면 언제라도 외환유동성의 고갈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제 2의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년 동안 경제위기 여파로 임금, 이자, 자가, 임대료 등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했던 생산비용 측면에서의 비교우위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물거품처럼 사

라져 버리고 있다. 최근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초과함으로써 국제수지흑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증가함으로써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는 반감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경기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증가한 통화량과 정부지출의 효과가 최근의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머지않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IMF경제위기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과소비 행태가 흥청망청 되살아나고, 이기적인 노조와 농민 및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IMF경제위기가 바로 잊고 있었던 것을 모르느라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경제체질 개선 금융부문 개혁

이러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경제운영 방향은 자명해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은 금융부문, 기업부문, 공공부문 및 노사관계의 4대 구조조정을 좀더 강도 높게



나성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최근의 현대의 차기총수자리를 놓고 벌어진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개혁은 요원하고, 기업의 행태를 감시해야 할 금융부문의 개혁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국유화되어있는 한 그리고 관치금융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역시 요원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급속히 증가된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줄임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간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빚을 얻어 경제회복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재정이 IMF경제위기 이전까지 건정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제2의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세대가 이루는 정치개혁

4.13 총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생유권자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에 이어 '대학생들이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3명의 낙선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로 시작된 '선거혁명'은 유권자들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선·낙선 운동이 벌어진 최근 3개월 동안 젊은 층, 그 가운데서도 대학생들은 정치 무관심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았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집결된 행동과 힘을 보이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 되어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각 대학별로 총선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가 꾸려져 대학생 유권자들에게 낙선운동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이메일로 제공하는 등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총선시민연대의 청년 참가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칭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R세대'가 바로 그것이다. 돌진(Rush)해서, 저항(Resistance)하고, 마침내 유권자 혁명(Revolution)을 이룬다는 의미의 R세대. 이 R세대에 유권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 소수 사람들만이 속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퀴'로 통용되는 요즘 젊은이들의 탈권 위적인 성향은 우리 나라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R세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젊은이들은 지역감정을 떨쳐버리고 유권자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뚜렷한 지지 정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결집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R세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 이번 총선에서 떨어뜨릴 사람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결집된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마지막 R을 이름으로써 당당한 R세대가 되자.

지역신문 언론탄압을 바라보며

언론은 급변하는 현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주고,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언론 본연의 주요 업무는 사건 보도에서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판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에 톱담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론탄압 실제의 대부분이 권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에 몇몇 언론사는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언론사도 있다.

최근 경주 지역 신문으로 약 10여 년 동안 활동해 온 경주신문이 권력 남용이라는 거대한 탄압에 맞서서 언론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독자의 알권리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어 경주 시민들의 갈채를 받고 있다.

언론 탄압의 불씨는 지난 3월 영불로 확·포장 개통식에서 벌어진 경주지역 국회의원회와 모 시의원간의 목불인견 추태에 대한 경주 시장의 태도를 지적·보도한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경주시청 공무원들의 신문구독 거절 사태가 줄을 이었고, 시청내 경주신문 보도함이 사라지기도 했다.

또한 일부 편집위원과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압력이 가해진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한 지역의 대표자인 시장이 시민의 권익과 자유를 권력으로 빼앗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는 다수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권력의 탄압으로 신문 발행이 중지되는 것은 바로 언론 존재의 위기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려는, 신문제작 방향이 탄압의 빌미가 되어서도 안 된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무비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이번과 같은 탄압사태 때문에 지도층과 시민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 지식 정보화

“이젠, 지식 정보가 경쟁력이다”

본교 특성살린 정보 인프라 구축해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늘어나는 자료를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로 만드는 것은 정보화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대학사회내에서도 과거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양이나 소장하고 있는 회귀 도서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대학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 했지만, 이제는 "얼마만큼의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위해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도서관이란 도서관에 직접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자료의 원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안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자료들은 디지털화 됐으며 웹상을 통해 도서관의 원문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본교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해 도

서목록을 검색하는 '도서관 자동화'에서 원문을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 본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gu.ac.kr)에서는 1만건의 학위논문과 53종의 국내의 학회지를 디지털화해 원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서적은 제목·저자·출판사 뿐만 아니라 '목차'까지 검색범위를 확장해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서울대의 경우 학위 논문 및 교수연구 보고서와 약 2천5백건의 한국학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 전자도서관은 지난 2월14일 현재 약250만 건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대학의 전자도서관은 다른 대학의 전자도서관과 일부 국립 도서관 및 국회 전자도서관과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운영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기술부족으로 살리지 못해, 일반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자료를 받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절차가



복잡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저작권 문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 이와 관련해 본교 중앙도서관 이광휘 사서는 "특별한 자료에 한해서는 타 대학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등 제공 범위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저작권을 보장하여 부분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대학은 지식이 경쟁력이 되는 정보

사회에서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고급자료를 정보화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은 정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와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교 전자도서관은 본교의 특성을 살려 불교학, 국문학, 영학·연극 관련 분야의 정보를 특화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학술정보 유통체계 확립에 힘써야겠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4·19기념 제31회 동국인 등산대회

4·19혁명 4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침묵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3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동국인 모두가 하나가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진정한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명 : 제31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 일시 : 2000. 4. 12(수), 08:30~17:00
- 장소 : 북한산(집결장소 : 4·19 국립묘지)
 - ※ 등산경로 : 4·19국립묘지→백련사 매표소→대동문(중식)→보국문→중성문→대서문→북한산성매표소→북한산성 매표소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 ※ 등산로에 표시리본을 부착하였으니 산행시 표시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행코스 곳곳에 안내 및 의료지원팀(하얀모자 착용)이 있으니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시내버스 : 6번, 6-1번, 1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4·19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 10분) 27번, 127번(우회함)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 셔틀버스 : 수유전철역 5번출구 삼성증권앞→4·19 국립묘지 입구(운행시간은 08:10~09:00임)
-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등 전동국인
- 행사내용 : 4·19 기념식, 등산대회 및 시상식
- 팀구성
 - 가. 4인1조 : 학(부)과 계열,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0이상 참가
 -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시 가산점
 -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
- 시상
 - 가. 4인1조팀 :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자연보호상
 - 나. 학과단체팀(6명) : 금상(₩1,000,000), 은상(₩500,000), 동상(₩300,000)
 - 다. 동아리단체팀(2명) : ₩300,000
 - 라. 장기자랑상 : 시상식때 장기자랑에 참여한 모든 동국인
 - 마. 행운상 : 참가자 전원중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하계방학기간내 해외연수(4명) 및 금강산 연수(4명)를 보내드립니다.
 - 바. 단과대학 특별상 : 단과대학 소속 교수가 모두 참가하는 단과대학에는 특별상금 ₩1,000,000을 지급합니다.
- 참가신청접수기간 : 2000. 3. 27(월) ~ 4. 10(월) 09:00~17:00
- 접수처
 -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 나. 4인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복지실(본관 3층)
- 유의사항
 - 가. 접수기간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및 기념품 지급합니다.
 - 나.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학과단체팀 및 동아리 단체팀은 반드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나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 라. 우선시에도 대회는 진행됩니다.(우산이나 우의 개별 준비)
 - 마. 도시락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쓰레기 봉투도 준비해야 합니다.)
 - 바. 기타 등산대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실(Tel 2260-30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 행운상 추첨을 위한 행운권은 행사당일 등산 출발전 배부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서울캠 학생처

동약로

2000 총선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 낙선대상자 명단

풀리지 않는 매듭(?)



지난 6일 도서관 앞에서 7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등록금인상반대 1차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본관으로 향했다.

"등록금 내려 왔습니다" 본관 재무 회계팀 바다에 와르르 쏟아낸 10원, 100원짜리 동전이 뒤섞인 채 산더미 같이 쌓였다.

재무 회계팀의 등록금 수납 담당자는 동전남부 한 학생에게 함께 셀 것을 요구했다. 동전을 다 셀한 결과 금액은 조금 부족하게 나왔다.

"어? 8천원이 모자라잖아?" "아니예요. 그걸리가 없어요. 다시 세어 보세요"

당당히 외치는 학생의 말에 산더미 같은 동전을 바라보던 한 담당직원은 "그냥 내가 8천원 보태줄 테니 그만 두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동전남부로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고있을 때 북도에서는 형형색색의 칼라가 벽면을 물들이며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에 대한 의견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크게든 작게든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낙서들로 북도 벽면은 삼시간에 더럽혀졌다.

"준비하시고... 락카 쏘세요" "조준... 계란발사"

북도 벽면을 나서로 가득 메운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서 날계란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등록금 협의문제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올해는 특히 전국의 사립대학이 모두 등록금을 인상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본교 학생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소수 납부 거부자들의 주장은 등록금인상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상의 투명함과 더불어 학교당국과 학생간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대결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대학생 유권자 여러분 이사람은 아닙니다

김중위 · 함종한 · 박승국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3일 4·13 총선 낙선대상자 86명을 발표했다.

특히 낙선 대상으로 지목된 후보자 가운데 22명을 집중적인 '타깃'으로 정해 "실정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김소열·전북대 총학생회장)는 △교육관계법 개악 △지역감정 조장 △부정부패 등을 기준으로 반드시 대학생들이 뽑지 말아야 할 3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중위(한나라당·서울 강동구), 함종한(한나라당·강원 원주) 후보는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박승국(한나라당·대구 북구갑) 후보는 낙선대상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지역총선연대가 추진하는 낙선대상자이다.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는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모아 낙선대상자 명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의 강훈식(26, 건국대 경영대4) 상임집행위원장은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낙선자를 알렸으니, 이제 유권자의 심판만 남았다"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다음은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 명단이다.

부정부패



-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동 - 공천반대자)
- ▲고려대 정경대학과 동대학원 졸 (정치학 석사)
- ▲한나라당 강동을 지구당 위원장
- ▲12, 13, 14, 15대 국회의원

-대통령 간선제 옹호 발언
86년 전두환 정권 당시 호헌문제가 중요하게 대두 될 때 "(대통령)직선제나 간선제나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과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죄악음모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함 (1986년 8월 6일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권인숙씨 성고문서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김중위 의원은 권인숙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 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말과 함께 "(권씨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가혹한 말을 함.

교육관계법



- 함종한 (한나라당, 강원 원주 - 공천반대자)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졸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
- ▲현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원주시 지구당 위원장

-교육관계법 개악
99년 8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재직중인 임시 이사의 임기종료'에 관한 내용을 가결 처리 함 (국회회기록)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무시
99년 7월 7일 후원을 열면서 교육부 국장급 간부들에게 참 석을 권유하는 초청장을 보내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 제 10항 공직자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의 가입과 후 원금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무시함

지역감정 조장



- 박승국(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경영학 석사)
- ▲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한나라당 대구 북갑 지구당 위원장
- ▲현 제15대 국회의원

-수차례에 걸친 지역감정 조장 발언
"투표할 때 대구사람이라면 1번을 찍고 대구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번호를 찍어라" "광주나 호남은 길이 잘 뚫여 있고 실업도 없다. 그러나 대구는 최근 실업률이 1%올랐고 실업자도 1만명이 나 늘었다"라며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치 않음 (한겨레21 98년 8월 6일자 제219호)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법들을 개악하는 반개혁적인 입법 활동
1999년 8월 교육부가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신 김허남 의원 등과 더불어 별도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등 교육관련법들을 개악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함 (교육부가 가진 입원 승인 취소권한을 취소 요구권으로 약화시키고, 임원취임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며, 공익이사제도를 삭제함. '교육 7적' 중 한 명으로 선정됨)

-불성실한 의정활동
평일날 그것도 국회회기 중에 골프를 쳐도 되느냐는 질문에 참석의원들은 "담당 상임위 없고 본회의 열리지 않는데 어찌냐"고 대답 함
회기 중 골프 모임 (1999년 3월 22일자 동아일보)



이제 유권자의 실천만 남았습니다

4·13총선 각 정당 교육부문 정책

한나라당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대학

한나라당에서는 대학이 세계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자치권을 강화시키고, 지역과 권역별로 특성화된 대학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과 자구 노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또한 BK21 사업에서 소외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권역별 대학발전방안을 확립, 사립대학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자민련 대학교육의 선진화

자민련은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과 학생 1인당 교육비 확충·투자 확대를 통해 대학교육 여건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권역별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연구비의 지원·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기초 학문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중점 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천년 민주당 교육자치의 확대, 강화

새천년민주당은 교육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자치 확대 △학교자율경영체제를 확립 △지방교육자치를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BK21과 관련하여 대학의 구조개편과 특성화 및 역할 분담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대학중심대학 모형과 발전지표를 마련하고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1-5-5-4(2)학제로 개편

민주노동당은 현행하고 있는 6-3-3-4학제를 1-5-5-4(2)학제로 개편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거대 학교·과밀 학급 해결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보당 무상교육 실시

청년전보당에서는 무상교육 실시를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민중 주도의 교육위원회를 건설하고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다.



"가자 놀자 찍자 바꾸자" 지난 8일 오후 12시부터 밤10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선시민연대, 대학생유권자운동본부와 각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Festival희망만들기' 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선거는 시민들의 축제고 시민의 힘은 세상을 바꾼다"는 테마로 유령연예인의 공연과 거리 퍼포먼스, 참여미술,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 묘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펼쳐졌다. 특히, 대학생 유권자권리선언대회와 함께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참여가 돋보였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쉬고 싶다!

휴게실 만족도 낮아 ... 공간 재배치, 시설보강, 시설관리 등의 노력 필요

도서관 휴게실



도서관 2층 휴게실은 여학생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3, 4층은 남·

여 공용 휴게실로 이용된다. 각 층마다 비슷한 시설들은 휴게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흡연실과 비흡연실조차 구분되어 있지 않아 4층 휴게실은 항상 담배연기가 자욱할뿐더러 휴게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복도'에 가깝다. 2층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의자와 책상을 비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보다 휴게실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이 필요하다. 2층 여학생 휴게실의 공간배치를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층의 휴게실마다 특성을 두어 인원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흡연실과 비흡연실의 구분, 여학생 휴게실의 특성화, 좁은 공간을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계산관 여학생 휴게실

계산관 여학생 휴게실은 주로 학원관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즐겨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다. 1층은 남학생들에게 계도 개방되어



있는데 PC를 사용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시간을 정해 예약을 하면 비디오 관람도 가능하다. 비디오, 책, 잡지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으며 피아노, 운동기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2층은 여학생들만의 휴식 공간으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계산관 휴게실은 사범대 학생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인데다 시설들도 열악하기 이를데 없다. 1층 휴게실의 비디오 관람실은 비디오와 의자 몇 개, 그리고 30여편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가 구비되어 있을 뿐이며 헬스 기구들도 비치는 되어있지만 사용할 공간이 없어 무용지물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할 피아노 역시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다른 학우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계산관 휴게실 1층은 협소한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들여놓아 어느 한가지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층 휴게실은 1층보다 비교적 넓음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 이외의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명칭을

무색케하고 있다.

1층과 2층의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여학생 휴게실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타학교의 경우 여학생 휴게실에 편안한 소파나 침대를 설치하여 여학생들만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피아노 실을 따로 만들어 방음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음악 감상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계산관 여학생 휴게실 2층의 경우, 책상과 의자만 비치된 공간을 비디오 관람실이나 음악감상실로 활용,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하거나 운동 공간으로 바꿔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그리고 1층 휴게실은 여학생들만의 휴식 공간으로 학교안의 작은 카페처럼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특성이 필요하다.

해화관 2층 로비



해화관 2층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약속장소

나 모임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칸막이로 답답하게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휴식공간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되

는 것은 아니다.

전면 통유리로 바깥이 환히 내다보이는 공간을 책과 칸막이로 막아놓아 채광도 안될 뿐더러 지나치는 사람들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내 상황에서 로비마저도 서점으로 이용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동국관 5층 휴게실



동국관 5층 휴게실은 휴식 공간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국관 이용 인구의 비교해 볼 때 턱없이 협소한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강의실과 자치공간도 부족한 동국관의 상태에서 그나마 제구실을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커피 자국이나 쓰레기, 먼지 등이 휴식을 위해 동국관 5층을 찾는 학우들을 불쾌하게 하고 있다. 보다 청결한 상태에서 담소를 즐기거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겠다.

최은진 기자



지난해 동대 신문에서는 학내 공간문제에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2회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인한 제한사항과 내부적인 협소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과 내부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에 역점을 둔 기획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과 새롭게 대두된 공간문제들이 속제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신축 준비중인 도서관은 좌석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컴퓨터 실습실의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용화 방안을 모색, 실행 중에 있다. 하지만 학생자치공간과 복지, 여가를 위한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며 명확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학내 휴게실과 복지시설 현황을 진단하고 더불어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

“우리는 이제 옥상으로 간다”

테마가 있는 옥상 ... 장기적 안목과 의견수렴으로 활용방안 모색해야

좁고 경사진 부지에 '남산 제 모습 찾기'라고도 제한까지 받고 있는 우리학교는 공간부족이라

는 고질병을 안고 있다. 강의실이 부족해 한 강좌의 수강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부지기수이



LG백화점 구리점은 1백여평의 옥상을 정원으로 가꾸어 고객들에게 휴식처로 제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 교수연구실이 모자라 2명의 교수님이 한 연구실을 나누어 쓰기도 한다. 이에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99학년도에 상록원과 정보문화관 2개의 건물이 완공되었고, 해화관과 정각원 사이에 신축하고 있는 '해화 별관'은 이번 학기 중으로 완공될 전망이다.

동약에 새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제2도서관 신축 부지인 강의동 자리를 제외하면 더 이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학생 휴식공간 및 복지공간이 현

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찾아보자.

본교에는 명진관, 동국관, 본관을 비롯한 23개의 건물이 있다. 그 가운데 동국관, 해화관, 문화관, 정보문화관을 비롯한 9개 건물의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건물들은 옥상 일부를 '매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화관을 제외하면 뚜렷한 용도를 갖고 있지 않다. 지난 해 완공된 정보문화관과 상록원의 옥상은 인공잔디가 조성되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상록원은 옥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평상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교내에서 유일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건물 옥상에 건물별로 특성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학생 자치활동은 물론이고 세미나와 수업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명 '테마가 있는 옥상'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문화관 옥상에 야외 무대를 설치해 연극공연이나 영화상영을 하고, 전시관을 마련해 미술대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남학생들이 많이 생활하는 원흥관 옥상에는 탁구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동국관 옥상에는 야외 세미나 시설을 갖추어 토론 중심

의 학회나 소모임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문화관 옥상에는 무선 랜망을 구축하여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꾸며진 건물 옥상은 그 나름대로 특색을 갖춘 효율적인 문화·학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심 속 숲'을 연상케 하는 휴식공간이 각 시내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LG 백화점 구리점은 옥상을 정원으로 꾸며 고객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천카페, 잔디밭, 조각품 등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좁은 도심에서 건물의 옥상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교 시설관리팀의 김계현 과장은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꾸러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옥상을 이용해 복지시설을 늘리는 일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ring@dgu.ac.kr



여기가 어디야 ... 동국관 L동 3층 화장실의 모습.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시설이 각종 물건들로 침범(?)당하고 있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책소개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먹거리에는 사람이 들어 있고 삶이 들어 있고 문화가 들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먹거리들을 체험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독특한 문화와 뒷이야기를 엮어낸다. 3백년을 한 곳에서 맛과 분위기를 유지해온 메밀국수집, 노천식당의 음식, 최고의 요리 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등 음식과 사람 이야기가 외국의 낯설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맛 있는 요리처럼 어우러져 있는 책.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해온 필자의 음식과 사람에 대한 섬세하고 진지한 시선이 돋보인다.

홍하상 지음 / 삼진기획, 정가 7천 5백원.

신화와 의미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1977년 캐나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강연한 내용을 글로 옮긴. 인간을 하는데 신화가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역사와 인류학, 철학을 접목시키면서 동시대 서구 세계에 대한 폭넓고 날카로운 전망을 제공한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신화와 과학의 역사적 분리와 원시적인 사고와 문명화된 사고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신화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한다.

클로드 레비 스트로 지음, 임옥희 옮김 / 이글리오, 정가 7천원.

비판불교의 파라독스



1980년대 말 고마자와 대학교수인 마츠모토 시로와 하카미야 노리아키 교수에 의해 체계화된 비판불교에 대한 총괄적인 개설서.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학 세미나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에서 발표된 국내 학자의 논문 9편과 마츠모토 시로 교수의 발표문을 수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텍스트 연구 중심인 한국불교학계의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간 불교학 이론들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정가 1만 2천원.

중국 역대 전문기담



본교 경주캠퍼스 중문과 최종세 교수가 중국 고대로부터 명·청대(明清代)에 이르기까지 전문기담(珍聞奇談)을 모아 엮어냄. 이 책은 중국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바닷물이 잔 것을 몰랐던 공자', '그림에 천재였던 황제 송 휘종' 등 모두 53편의 기담들을 싣고 있다. 중국에 관심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읽을거리가 될 듯.

최종세 지음 / 월인, 정가 9천원.

4·13총선과 임시정부

4·13총선. 이 날은 바로 81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임시정부는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광복의 구심체이며 민주주의를 건국의 이념으로 연결시킨 최초의 정부이다. 이런 날을 새 천년의 첫 선거일로 잡았다는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

임시정부가 나라 건설의 새 출발을 예고했다면 이번 총선은 나라 발전의 새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임시정부가 거족적인 민족독립세력이 모여 구성되었다면 이번 총선은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애국민주세력이 국회를 구성하는데 있다.

새 역사의 창조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성에서 출발한다. 주권을 상실한 뼈아픈 반성이 임시정부를 탄생시켜 민족해방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우리도 구정치의 낡은 유산에 대한 자성 없이는

새 천년을 열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꼭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이 전개되고 재산, 납세, 병역, 전과(前科)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선거무대의 세 주역인 유권자, 후보자, 정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현장에서는 구태(舊態)가 판을 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민망한 후진적인 말과 행태가 춤을 추고 있으니 어찌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래 가지고서 이번 총선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있을지 또 선거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와 구태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해답은 명백하다. 변화를 선택해야 한

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첫째,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병역, 납세 등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 뒀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둘째, 부정·부패한 사람이다.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치는 근본요인이다. 가뜩이나 부정·부패에 물든 나라에서 또 다시 이런 사람을 뽑으면 그것이 곧 망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거짓말과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되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람이다. 더구나 정치인은 그 나라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순국선열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



유 광진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연상품권

“사랑티켓을 아세요?”

연극 활성화에 기여 ... 시행범위·혜택 늘어나



사랑티켓은 서울전역의 '사랑티켓 행사'에 참가한 순수공연예술(연극, 국악, 무용, 오페라, 창극, 연주회, 뮤지컬 등)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다. 이는 지난 91년 정부가 '연극의 해'를 맞아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관람료가 부담스러워 관람을 꺼렸던 사람들에게 관람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발매되었다. 이러한 사랑티켓의 발매는 공연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문화공연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더 가깝게 자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랑티켓이 발매를 시작한 당시에는 5, 6월과 10, 11월의 4개월 동안만 관람료 5천원의 공연을 3천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관객과 극단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사랑티켓의 발매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지난해부터는 사용기간이 연중내내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랑티켓은 올해 들어 그 범위가 혜택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까지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않았던 사랑티켓을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층까지 확장 판매

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도 지난해 5억여원에서 10억여원으로 두배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한국연극협회 사무국장 김혁수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한달 티켓발매량을 일만 매로 한정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만 7천매로 늘렸고, 티켓의 종류도 1만 2천원권 한 종류였던 것에 2만원권과 8천원권을 추가했다"고 한다.

사랑티켓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티켓박스에서 1인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3종류의 티켓을 각각 5천원씩 할인하여 2만원권을 일만 5천원에, 1만 2천원권을 7천원에, 8천원권을 3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사랑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사랑티켓신문'이라는 무료배포지를 통해 공연안내를 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더하고 있다. 사랑티켓을 자주 이용한다는 연극관객은 "생동감 넘치는 무대 공연을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에게 사랑티켓을 선물로 줘도 손색이 없어요"라며 사랑티켓을 애용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이처럼 사랑티켓은 사람들에게 공연문화에 대한 애정을 증폭시키고 동시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침체되고 있는 대학로 연극을 부흥시키고 문답은 극장들을 살리는데 힘을 보탬은 물론 우리 공연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문화재 보존 활동

“문화재도 병원간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미세부분까지 복원 가능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문화재 보존처리 활동은 80년대 후반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최근 4~5년 사이 관심 급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보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는 경주 내 '국립 경주박물관'과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2곳이 있다. 그 중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연간 5백여점 정도의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고 있으며 부식되는 두께를 알 수 있는 X-ray 촬영기, 정밀분사 가공기, 금속 전자현미경, 수중 분석기 등 20여종의 기자재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의 보존 처리실은 단지 부식된 것을 복원하고 약품 처리하는 단순한 작업들이 이루어졌지만 보존 과학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존 처리는 기본이며 미세한 부분까지 복원해낸다. 현대 과학을 응용해 문화재의 재질, 구조, 성분, 연대 및 보존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복원 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듯 보존 과학실은 금속·목재·석재·도자기·고분벽화 등 부식되고 손상된 문화재를 과학기술로 고치는 '문화재 종합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인원과 전문적인 기술자 채용의 필요성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재 상태 파악을 위해 X선 검사중.

는 것들도 많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 조건에 따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수명이 짧아진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뛰어난 문화재들은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에 의해 훼손되고 도난 당해왔다. 이제 남아있는 문화재와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활동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길보기엔 불품없어 보이고 가치가 바랜 문화재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과 생활상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할 수도 없고 복제할 수도 없다. 점차 세대가 바뀌고 서구문물이 들어와 우리의 것이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세계문화에 대한 경쟁력마저 상실되고 말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정립과 문화재 복원작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동대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 연사 : 황석영 ■ 일시 : 2000년 4월 17일(월) 오후 4시
- 장소 : 중강당(본관) ■ 제목 : 이들을 위하여 - N세대에게 고함.

매체비평

- TV 광고편

‘맥도날드’

“빅맥 노래 사랑, 빅맥송을 불러라”



매장에서 빅맥송을 부르던 할인쿠폰을 준다.

공급했다. 과연 몇 명이나 부를까? 빅맥송 말이다. “빅맥송에는 뭐가 들어 있나, 양파, 피클, 치즈, 소스, 양상추, 참

깨빵에 쇠고기살 2장이란다. 아가씨야 빅맥을 잊지 말아라” 빨간 마후라를 멋드러지게 맨 과일뿔들이 부르는 입에 착착 붙는 빅맥송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천원을 깎아 준다. 맥도날드 앞을 지날 때마다 혹은 드나들 때마다 입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노래 부르고 쿠폰 받아가는 사람 있나요?” 몇날 몇일을 고민하며 잠도 설쳤다.(물론 과장이다) 가려우면 긁어줘야 시원하고 공급한건 풀어야 후련한 법이다. 용기를 내서 불렀다.

다 해도 맥도날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 노래를 외워서 부를 정도라면 이 광고는 대성공한 셈이고 선심까지 써가면서 기업 이미지를 머리속에 깊숙이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발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놀라울 뿐이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하면 꽤 씩씩하다. 우뚝한 기분이 가지지 않는다. 기업의 ‘이벤트’라는 것이 다양한 혜택과 적당한 자극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살리려는 의도인데 맥도날드의 이번 광고는 강한 자극만 있고 혜택은 빠져있다. 시골벽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력, 재주넘기등을 보여주며 약을 팔아하는 시골장의 약장수 생각이 난다.

소비자는 왕이다. 요즘처럼 서비스 정신

이 강조되는 이 때 소비자는 왕보다도 한 수 위인 황제로 대접해 줘야할지 모른다. 그런데 맥도날드는 황제에게 빅맥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다. 달래고 얼리는 기분이 들어 광고를 볼때마다 심기가 불편하다.

오기가 생긴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큰 소리로 한번 불러줘야겠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맥도날드의 문을 연다. 하지만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빅맥송을 부를 용기는 여간해서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꽤 씩씩한 잘 만든 광고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광고는 강한 이미지를 남겼고 결국은 맥도날드로 찾아오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잡은소식

학교 안에서

작은 영화제



서울캠 영극영화학부에서는 지난 방중 Work Shop 작품으로 준비했던 영화들을 스크린에 올린다. 기성 영화와는 다른 참신한 시선으로 바라본 10~15분 길이의 단편영화 10편을 매해마다 상영한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본교 학생들의 생각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

13일(목), 14일(금) 6시 30분, 15일(토) 3시, 6시 30분, 90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입장료 무료. 문의 2260-3669

Rock 콘서트



서울캠 소모임 'Fearless Dawn'이 한 팀당 5-6곡 정도를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메탈리카의 'Sad But True' 나 크라이프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 메가데스의 'This was my life' 등의 노래를 관객에게 선보인다.

Rock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축제 마당이 될 듯. 11일(화)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입장료 2천원. 문의 011-9890-2599 (박찬영: Fearless Dawn회장)

학교 밖에서

서울문화교실

음악, 영화, 환경, 사진, 인터넷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한 화소식.

서울시에서는 5월2일부터 6월말까지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시행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청 별관2동의 문화정보자료실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받는다.

음악과 영화사이, 생태적 삶과 생명사상, 사진의 이해와 역사, 색사한 인터넷, 서울씨네클럽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수강생에게는 각종 초대권과 시사화권의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PC통신(천리안, 하이텔 go seoul) 인터넷(www.metro.seoul.kr) e메일(mmc6906@hotmail.com) 전화(3707-8325)

음악과 영화사이	5월2일~6월27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8시
생태적 삶과 생명사상	5월3일~6월21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8시
서울씨네클럽	5월4일~12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사진의 이해와 역사	5월12일~6월30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8시
색사한 인터넷	5월20일(토), 5월27일(토)	2회강의 오후 1시~3시

내게 '퓨전(fusion)'을 말해봐!

조화 통한 상승 작용 ... 고급 예술과 대중간의 거리 좁히는데 기여

너희가 퓨전을 아느냐

웅재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퓨전(fusion)'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가 됐다. 퓨전 요리, 퓨전 음악, 퓨전 마케팅은 물론, 심지어 퓨전 음료까지. 과연 21세기의 화두가 되어버린 퓨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퓨전, 2대 이름은 '버블밥'

'퓨전(fusion)'은 스위스의 특색있는 요리 '퐁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퐁뒤'의 하나인 '치즈 퐁뒤'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그뤼예르 치즈에 알코올과 향신료를 넣어 불에 녹인 뒤 빵조각을 찍어 먹는 요리를 말한다. 그 은근한 맛의 비결은 퐁뒤(fondue=녹인다)라는 말 뜻에 그대로 담겨 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빵과 치즈 퐁뒤의 조화와 그로 인한 맛의 상승작용. 그것이 바로 퓨전 문화 또는 퓨전 현상의 요체다. 섞임으로 나타나는 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가진 퓨전은 요리보다 음악에서 먼저 대중적이고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때 국내 가요계에서 퓨전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90년대 초반. 많은 가수들이 자신의 음악이 퓨전 재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앨범의 한 두 곡을 퓨전 재즈 스타일로 녹음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내 가요계에 불었던 퓨전재즈 바람은 퓨전재즈를 완전히 수용한 형태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말하자면, 가요의 멜로디에 재즈적인 리듬이나 분위기를 차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퓨전은 말 그대로 타장르의 요소를 수용한 음악이며, 퓨전재즈는 정통재즈가 현대음악을 수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퓨전재즈의 기류는 재즈의 실험가라 불릴만한, 늘 변화를 선두에서 지휘했던 마이클 데이비스가 'Bitches Brew'를 발표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를 이어 70년대와 71년에 조 자비들의 'Weather Report'와 최 코리아의 'Return To Forever'가 결성되고 이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퓨전재즈는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 듣기에 부담감 없는 사운드는 퓨전 재즈의 성공을 가져다주면서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으로부터 확산된 퓨전 요리란?

국적없는 요리를 말한다. 80년대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아체를 마요네즈 대신 간장과 참기름으로 버무려 내놓은 뒤 확산됐다. 퓨전요리의 최초의 버전을 따져보면 이탈리아 스파게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마르코폴로가 중국에서 가

져온 국수였다 미국 신대륙에서 들어온 토마토 소스로 만든 스파게티는 아시아, 유럽, 미대륙 문화가 합쳐진 요리이다. 국내에서는 97년 서울 강남에서 선보인 이후 지난해 가을부터 유행, 근래엔 인사동 한정식집이 퓨전식당으로 간판을 바꿔달 정도로 잘 나가는 음식 장르가 됐다.

퓨전야, 어디까지 왔니?

절충, 크로스 오버를 의미하는 퓨전은 현재 미술, 영화, 문학, 패션, 요리에 이르기까지 확대돼 '장르 구분없이 융합되는 현상'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음악에서 타장르의 요소를 수용한 것이라는 규정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 동서양의 만남, 너와 나의 만남 등 이 모든 만남들을 퓨전이라고 할 수 있다.

퓨전요리의 대표로 각광받고 있는 라이스버거의 예를 보자. 감히 빵 대신 밥을 푹푹 뭉쳐 고기를 사이에 끼워먹을 생각을 19세기에라도 할 수 있었을까. 휴대폰에 MP3 플레이어 기능이 첨가된 MP3폰, 육군과 해군을 합친 해병대 등등도 마찬가지이다.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탄생하며 우리는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장점과 특징만을 모은 절충의미를 탄생시킨다. 이것이 퓨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다. MBC방송국은 얼마 전 '퓨전콘서트-가락(매주 화요일 12시 20분 방송)'이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국악과 현대 대중음악의 접목을 시도하여 퓨전의 시너지 효과로 국악의 대중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취지였다. 또한 3월초 이문세 씨도 장모인 현대무용가 육안순 씨와 색다른 무용발표회를 가졌다.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만난 무용발표회는 육안순 씨가 선정한 이문세 씨의 노래 20곡을 무용곡으로 편곡,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퓨전아트였다. 공감하는 소재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는 문화생산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퓨전이다.

이런 융합은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상품의 컨셉에서도 나타난다. 얼마 전 네트워크의 N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매기가 되지 않았던 시기와 같이 최근에는 퓨전마케팅이 마케팅을 이어 장르를 넘나들며 사용되고 있다. '2000년 북미 국제요소쇼'에 선보인 자동차도 차종의 경계를 허무는 기능복합형 크로스오버 차량이 주류를 이뤘다. 포드는 픽업트럭 형태의 차량에 짐칸을 5.5인치 정도로 줄이고 승용

부분을 극대화 한 'F-150 슈퍼크루'를, 폴크스바겐은 픽업트럭에 톱 클래스 세단의 우아함을 합친 AAC(Advanced Activity Concept)를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LG텔레콤에서 신세대를 겨냥해 출시한 새로운 브랜드 '카이(Khai)'도 '퓨전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매개로 현실 공간 속의 문화경험을 제공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퓨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퓨전의 미래와 정체성

위에서 말했듯이 퓨전은 협력의 패러다임이 틀림없다. 공생공존, 동고동락, 섞여찌개와 같은 그런 융합인 것이다. 잡종·혼성 문화로서의 퓨전은 고급예술과 대중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한다. 기존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변증법적인 시도와 문화의 한 장르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지만 퓨전의 봄은 새로움을 원하는 소

퓨전 음악

Pat Metheny Group의 'First Circle'

최근 'A Map Of The World' 음반을 내기도 한 이들의 1984년 음반. 스코틀랜드의 민요를 듣는 기분에도 젖어 보다가 신나는 펑키리듬에 묻혀서 리듬을 세어보기도 하고 때로 엄마의 자장가같은 편안함을 느껴보는 등 다양한 퓨전재즈를 감상할 수 있다. Forward March, The First Circle, If I Could, Praise 등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Casiopea의 'Best of Best'

일본 퓨전 재즈계의 거장이라 평가되는 이들의 음악 중에서 Best만을 모아놓은 음반. 1979년 데뷔 앨범 'Casiopea'를 발표한 이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룹이다. 지난 9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다. 'Halle', 'Access', 'Red Zone' 등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표은영 기자 bluein@dgu.ac.kr



퓨전 요리

그랜드 하바나의 '차쿠에이티아오'

둔육, 새우, 어묵, 고추를 넣고 볶은 넓은 쌀 국수 요리. 전통적인 프랑스의 조리기술에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동양의 향을 가미해 맛을 낸다. 여기에 디지털로 초코렛 무스와 머링을 구운 'Blanc'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 입구정도에 있는 이 식당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퓨전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스스로의 취향에 맞춰 요리를 고를 수도 있다. 문의 514-0271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떡'

궁중음식이 박경미씨가 우리 고유의 떡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퓨전화시켰다. 떡 자체는 퓨전요리가 아닌 한국의 전통음식이지만 모양과 색을 변형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퓨전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와하여 정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팔떡, 콩떡, 유과, 약밥 등의 떡과 과자를 예쁘게 포장해내고 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에는 연인에게 초콜릿 대신 이곳의 떡을 선물하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문의 393-9731

메아리

종합병원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라고 배워왔다. 식목일만큼은 무성한 수목이 자라남을 꿈꾸며 묘목의 밀거름을 다독거려 물을 주었고, 행여나 꽃이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돼 조심스레 꽃밭에 물을 주던 우리의 동심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맑고 타없는 동심이 어른들의 실수로 상처 입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선 조심스러워진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후보자의 전과, 병역, 납세 실적 파헤치기는 전국 각 지역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후보자는 안절부절 병, 마음 고생 병, 의혹 병 등으로, 선거운동원은 멍든 눈과 부러진 갈비뼈로 시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유세장에서 얼굴 붉히게 하는 상대 후보 비방 전과 선거 운동원끼리 다투는 모습이 눈앞

에 오가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정신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입원을 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쓰러운 생각뿐이다.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 농가의 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회창 총재는 '정부는 축산업 기반이 무너지려 하는 데도 선거에 혼이 빠져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O PROBLEM'을 외치는 정부는 구제역 대책 특별 자금을

5천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의사 구제역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방역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쓰러운 생각은 고쳐야할 병 투성이다. ▲의약분업 협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전국 각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휴진하는 사례가 빛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흉내 의원마저 집단 휴진을 계속 진행중이다. 전국 개원의원 80% 휴진, 의사들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말하니 세상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가 보다. 아파도 병원을 못 가니, 식목일에 심은 나무는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만 할 것 같다. 뿌리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될 지 모르지만 울굴지 못한 나무를 그냥 내버려두면 후일에 자라나도 건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소나기

출석... 교수가 나를 부를때



△출석이 중요하냐! To be 출석, 등투가 중요하냐! or not to be. 이것이 문제로다. 음~ no problem.
 △떨린다. 고등학교 때 속삭이던 일이 자꾸 생각나서.
 △제발 이름 좀 바꿔 부르지 말라. 부를 때마다 틀려 사람 피곤하게 한다.
 △다른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자랑스럽다.
 △반갑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이다.
 △출: 출석체크는
 식: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출석은 시작할 때 부르는 것인가? 끝날 때 부르는 것인가?
 △강의를 들러 온건지, 출석체크를 하러 온건지...
 △때론 교수가 나를 부를 때 '왜?'라고 대답하고 싶다.
 △교수는 나를 부른다. 하지만 대답은 친구가 한다.
 △출석? 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서비스 사업... 대박 터질걸(?)
 △출석표가 대출하기 그만이야!
 △꼭 내가 없을때만 부른다...
 △중강시간 5분전...출석을 인정해야 할까?
 △출: 출석이라 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교수: 1번(홍길동)? (나가냐?)
 1번: 예
 △어! 출석을 부를 때도 성대묘사기! 친구의 성대묘사 "에"
 △대출은 대학 생활의 모미 아닌가!
 △천(1000)의 목소리를 가진 자여. 그대를 사랑한다.
 △출다가 대답 못했다...
 △흥분된다!
 △당당한 첫 외침! "네" 두 번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네"
 △친구가 대답한다!!
 △"나는 그에게로 가 꽃이 되었다."
 △관동성명이 나온다.
 △타이밍 잘 맞춰서 나름대로 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네~에.
 △출석부엔 내 이름이 없다

관료제로 인한 개성 상실

연구실, 독자적 공간구성의 자유 마련돼야...

공교롭게도 밀레니엄이 시작하는 2000년에 모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게된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싶다. 더욱이 남들은 명퇴니 전직이니 하는 불혹의 나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첫 직장인 것 같아 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크다.
 이제 나도 나이가 조금 들었나보다. 8여 년의 외유 후에 대하는 불경소리와 단청의 색깔이 너무나 친근하고 포근하게 느껴졌고 조그만 일에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파리 전례를 예술 작품화하는 프랑스인의 태도를 나의 공간에서부터라도 구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연구실을 나름대로 예쁘고, 분위기가 있고, 또한 고풍적으로 꾸미고 싶었다. 나만의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가구와 색상으로 처리해 연구실을 틀에 박힌 기능적인 역할 이상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계획과 기대가 현실화되기에는 너무 낭만적이었나 보다. 개학과 함께 나의 연구실에는 학교 관료제에서 자비롭게 베푸는(?) 가구들이 나의 낭만의 공간을 대체했다. 책상, 의자, 테이블, 책장 캐비닛, 전화를 포함하여 관료적 색상과 모습을 한 가구들이 통제와

효율이라는 이름을 한나의 추측) 그 침입자의 주인공들이었다. 관료제가 내가 어떤 색상의, 어떠한 스타일의 가구를 좋아하는지 안다는 오만함에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물론 교육부와 학교 행정 관리자들이 제도화해온 강사의 박통제도에 길들여진 나로서는 학교 관료제가 베푸는 연구실 가구의 제공에 성은이 망극하여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공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은 이 배고팠던 시간 강사의 유일한 자존심으로 남기고싶다.
 관료제의 통제가 나의 사적인 연구실까지 침입해 나의 선택과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일상적 모습이 아닌가한다.
 통제와 통일을 좋아하는 관료제가 창의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이 선생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좋으련만, 관료제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우리의 언어, 생각, 그리고 모습은 식민지 노예화되어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구속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가 관료제가 통제하는 연구실에서 찾아질 수 있나 그것이 문제로다.
 김홍희(경주캠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교정의 오후... 나른한 봄벌레에 피어오르는 소담스런 꽃망울처럼 학생들의 해사한 웃음이 정겹기만하다. 네 팔다리를 다 동원한 저 친구의 사연은 무엇일까? 저리를 재미있어 할까? 촬영=송광수 동문

무인도

시작되지 않는 그곳엔 끝도 없다.
나타나지 않는 그곳엔 사랑쟁도 없다

내 가슴속
혹은 그대의 가슴속
손이 닿지 않는 눈길에 닿지 않은
숨은 그림

무존재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없음으로 있음을 말하는
바위의 침묵 파도의 외침

시작되지 않는 그곳엔 끝도 없다
만남없는 그곳엔 이별도 없다

존재에 말하랴 그대의 이름을 그대의 고통을

정영희(경주캠 인문대 국문교)

제 1292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학 기자의 비판적 목소리 부재

학술면·기획면, 청탁에 의존한 지면 제작과 지나친 낙관론은 피해야

우리가 신문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근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섭취하기 위함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사회를 읽어 낼 수 있는 힘을 획득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난 호 신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난 호 동대 신문의 정보력은 여느 신문에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충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여 기사화 한 것은 칭찬 할 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기획면과 학술면의 주제들은 모두 교수나 전문가들에 의해 서술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인지 기사들은 너무나 단정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대학 신문의 가장 큰 매력인 기성신문이 제기하지 못하는 건강한 비판 정신에 있다고 본다면 이는 대학 신문답지 못한 일일 것이다.
 덧붙여 생각해 본다면, 다른 한가지의 아쉬움은 기획면에 실렸던 정보사회 기사에 대한 아쉬움이다. 물론, 박찬웅 교수의 글에서 정보사회의 낙관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을 개괄하여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사에서 보여지는 관점들은 너무 낙관론에 경도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사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나 정보의 독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비판적 문제 제기는 가상공간 속 신 경제 패러디의 모색이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관한 연구 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 아니었나 한다.
 대학신문이 나름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인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비판의식이 중요 요소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동대신문이 더 많은 대학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더 다양한 관점들과 시각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금엽(사과대 사회 3)

TEL : 22603491 · 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동대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 연사 : 황석영
- 일시 : 2000년 4월 17일(월) 오후 4시
- 장소 : 서울캠 중강당(본관)
- 제목 : 아들을 위하여 - 세대에게 고향.

벌거숭이 세상 (2) 신용우 nlyong@hanmail.net

식사중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본다

시험중 아쉬운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본다

미팅중 마음에 드는 상대를 보았을 때 본다

당신은 더 신중히 결정을 합니다.

'16대 총선' 투표 합니다. P.S 투표일은 4.13일 입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민두국밥(1300)
화	오징어김치덮밥(1500)
수	닭곰탕(1300)
목	미트볼덮밥(1500)
금	참치김치찌개(1300)
	제육떡갈비(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참치우거지국(1300) 순두부찌개(3000)
화	소고기야채밥(1300) 닭조림(3300)
수	소고기버섯찌개(1500) 이채전골(3300)
목	오징어까스(1300) 소갈비찜(3800)
금	알자탕(1300) 소고기국밥(3300)
	후랑크볶음밥(1300) 돈불쌈밥(3300)

(단위: 원)

동약광장

알립니다

△야총 해오름식이 14일 늦은 6시에 중강당에서 있어요.
 △4월 11일 Fearless Down 공연! 동대는 우리가 지킨다.
 -지구용사 특공대 ZOT 기태!!!
 △4.29 문과대 새내기 백일장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국문부짱

그리고...

△인문학부 학생회 출범식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4/9일까지 내야하는 등록금을 총학생회 간부와 각 단위 간부들은 등록금이 동결될때까지 내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함께하는 투쟁이었으면 합니다. -2:8
 △분경아 175라고 기죽지마라 작은키가 매력적일수도 있단다. -J.W&K.Y
 △학원자주쟁취를 위한 사법대 단식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투쟁! -국교장

온방글

축하합니다

△영철이선배! 여자친구 사귀거 무지무지 추카해요.
 △혜민이선배! 결혼 정말 축하해요.
 △한의대 천재 토익 9백 9십점 맞은거 진 짜루 추카.
 △은지야! 생일 무진장 추카. 남자친구 사귀면 소개시켜줘.
 △사랑하는 친구 경희야! 너 동문회 기장 됐다며? 축하해.
 -너의 오래된 친구가
 △동국농구부 영준이 형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0학번 영준이가
 △경축 해병대 창설 51주년(4.15) -73.9

열심히 합니다

△불문대 회장오빠! 남들 말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오빠 소신껏 일하세요. 힘내시구요. 화이팅!! -불동 98 이쁜이
 △필우야! 너 좋은 일 하느라 수고많지? 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깐... 열심히해. -같은 과 친구가
 △이번에 중간고사 모두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란다. 법정대 화이팅.
 △축구동아리 아이보리 모두들 올해도 열심히 뛰자.
그리고...
 △시립교지 여러분! 우리 한해도 부지런히 잘 해내서 정말 기쁘다.
 △야총 여러 사람들! 이번에 등투 참여하면서 힘들었던거 다 이해한다.
 △NEWSWEEK 광희야! 동아리 이끌어 가느라 힘들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의 열정이라면 NEWSWEEK는 더욱 발전할거야. 동기가 있잖아 힘내라. -박교문
 △불대 형님들! 이번 해오름식 정말 좋았어요. 우리 불대 한번 더 기상을 펴서 동대 불대 이름을 날려요. 화이팅!!!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무찌개(1300) 산채국(1300)
화	돈까스(1500) 낙지볶음덮밥(1800)
수	미역국(1300) 콩나물해장국(1300)
목	김치볶음밥(1600) 쇠고기덮밥(1700)
금	김치왕파국(1300) 호박두부된장국(1300)
토	돈육덮밥(1600) 갈비탕(1800)
일	멸우김치비빔밥(1300)
	첼이채볶음밥(1600)
	시래기국(1300) 순두부찌개(1300)
	생선가스(1800) 오징어덮밥(1600)
	무채국(1300)
	쇠고기무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단위: 원)